

지역 백년대계 제2차 토론회

평택교육의 미래와 공공성 강화

2025.11.13(목) 15:00~17:30

평택대학교 본관 회의실(3층)

환영사	남중웅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발표 및 토론	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발제 1	진숙경 서울시립대 교수 “미래를 위한 평택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
발제 2	선재원 평택대교수 “지역 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
종합토론	좌장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토론	도승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경기지부장) 박철웅(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목원대 교수) 하태원(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

주최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 전국교수연구자연대 | 교수노조평택대지회



『지역 백년대계』 제2차 토론회 “평택교육의 미래와 공공성 강화”

일 시	2025. 11. 13.(목) 15:00~17:30
장 소	평택대학교 본관 회의실(3층)
환영사	■ 남중웅 전국교수자연대 상임대표
발표 및 토론	<p>좌장 김기수 대표(평택시민신문) 발제 1 진숙경(서울시립대 교수) “미래를 위한 평택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p> <p>발제 2 선재원(평택대 교수) “지역 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p> <p>좌장 이은우 이사장(평택시민재단)</p> <p>토론 도승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경기지부장) 박철웅(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목원대 교수) 하태원(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p>

주최: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 전국교수자연대 · 교수노조평택대지회

- 목차 -

- 머리말 ----- 1
- 환영사 (남중웅) ----- 3
- 발제문 (진숙경) ----- 5
- 발제문 (선재원) ----- 17
- 토론문 (도승숙) ----- 27
- 토론문 (박철웅) ----- 34
- 토론문 (하태원) ----- 37

머 리 말

지역백년대계와 평택교육의 미래 — '공공대학법인'으로 여는 시민대학의 길 —

선재원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금 평택의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의 구조 속에서 다수의 지역 대학이 통폐합과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백년을 설계하는 공공 인프라이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평택대학교는 지난 40여 년 동안 평택시와 함께 성장해온 지역의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사학비리와 운영의 사유화로 인해 대학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교육의 공공성 역시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영개선이 아닌, 제도적 혁신과 거버넌스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공대학법인**'입니다.

공공대학법인은 대학의 법인 운영권을 특정 개인이나 재단으로부터 시민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평택시와 경기도, 교육부가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고, 교수·직원·학생·시민이 참여하는 운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대학 모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 방안」은 지역 교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논의이며,

두 번째 발제 「지역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은 평택대학교가 ‘시민의 대학’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제시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시민,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장 후보,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등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동의 실천의 장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평택의 백년대계”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그 길에 평택대학교 교육공동체가 앞장설 것입니다.

환영사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백년대계’, 그리고 ‘평택교육의 미래와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백년대계를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시장만능주의와 약탈적 재정구조로 점철되었습니다.

라이즈(RISE), 글로컬30, 무전공제도 등 이름만 그럴듯한 사업들은 모두 경쟁과 차등지원의 틀 속에 대학을 몰아넣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이라 포장했지만, 그 속살은 대학 간 생존경쟁을 부추기는 상호약탈적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대학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학문과 교육은 성과지표에 갇혀 벼렸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졌고, 지방대는 소멸의 벼랑으로,

수도권 대학조차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학생과 교수, 지역과 국가가 함께 잃어버린 시간—

그것이 지난 3년의 고등교육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고등교육정책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 회복과 국가전략 수립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정책적 완성도도 미흡합니다.
국가균형발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대학 혁신 등 핵심 의제들이
충분한 철학적 토대 없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혼선과 피로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교육철학의 전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성과주의’와 ‘사업 중심주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신자유주의일 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학 재정구조를 경쟁과 평가 중심에서 기본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공모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무로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입니다.

둘째,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역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지역혁신과 산업전환, 평생교육의 중추이며,
‘지역 백년대계’란 바로 대학이 산업·문화·공동체를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통제가 아니라,
교수·연구자·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학문은 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양심이자 국가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평택은 이미 그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유학교, 늘봄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초·중·고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의 활력을 동시에 복원하는 모범적인 실험입니다.
‘지역이 학교를 키우고, 학교가 지역을 키우는’ 이 평택의 경험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구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국가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을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공공성과 지역균형의 철학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수연구자들이 먼저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뜻을 모아주신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전국교수연대, 교수노조 평택대지회,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로 ‘지역 백년대계’ 구상을 현실로 이끌어주신
선재원 민교현 직전 상임의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실천이 모여
평택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중심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남중웅

미래를 위한 평택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

2025년 11월 13일

진숙경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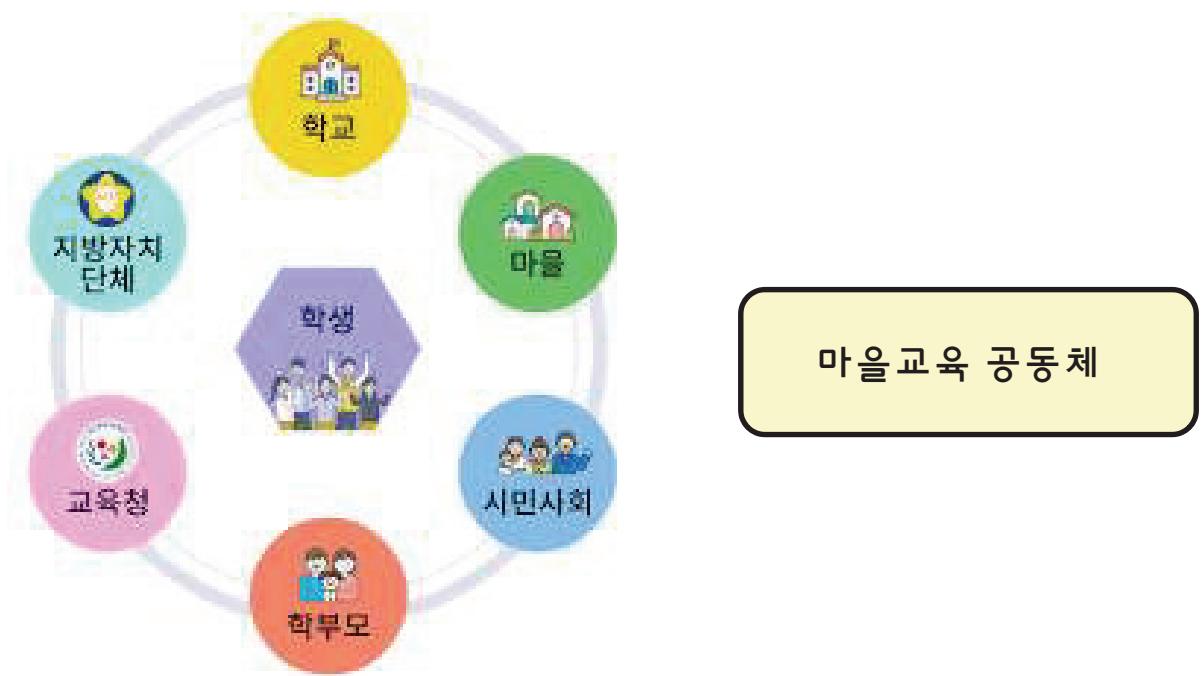
1



2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여전히 온 마을이 필요하다"



평택시 초중고 학교 현황

유치원 117개, 초등학교 71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21개, 특수학교 2개 등 총 242개

학교현황 (2025. 4. 1. 교육통계 기준)

학교급	설립구분	학교수 (분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	특수	순회	계		
유치원	공립	82 (2)	224	38	1	263	3,078	498
	사립	35	254	0	0	254	4,515	374
	소계	117	478	38	1	517	7,593	872
초등학교	공립	71 (3)	1,504	107	3	1,614	33,507	2,476
	소계	71 (3)	1,504	107	3	1,614	33,507	2,476
중학교	공립	20	457	35	2	494	12,749	1,014
	사립	11	190	1	0	191	5,008	402
	소계	31	647	36	2	685	17,757	1,416
고등학교	공립	9	272	20	1	293	7,496	632
	사립	12	318	1	0	319	8,964	728
	소계	21	590	21	1	612	16,460	1,351
특수학교	사립	2	0	42	0	42	252	103
	소계	2	0	42	0	42	252	103
총계		242 (5)	3,219	244	7	3,470	75,569	6,218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유형(1)

- 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상시적 개설·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공유학교의 성격이 가장 잘 반영된 유형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예: 평택향교, 평택어린이천문대 등)
- ② **수업위탁형 프로그램** :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개별 맞춤 교육활동을 제공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정규수업시간에 개설·운영되는 위탁프로그램.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배움이 느린 학습자, 이주배경학생 등 교육소외 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돋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
- ③ **공헌형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관(단체)이나 기업이 지역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역 기관(단체)이나 기업이 가진 전문인력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반도체 실험실과 같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서 실습을 할 수 있어, 보다 깊은 학습을 할 수 있음. (예: 삼성 과학, 논술, PIEFriends 등)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유형(2)

- ④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역량 신장을 지원하며, 대부분 고등학생 대상 진로 연계 강좌로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지역 내 대학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대학을 방문하여 참여하는 방문형 이외에도 인근 거점시설을 활용하는 거점형,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형으로 운영
- ⑤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운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 기관을 발굴하고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
- ⑥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 학생이 기획하고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설 전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기획 워크숍을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예: 패션 주얼리, 아트테라피, 요리, 오케스트라, IT 등)

7

경기공유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 소개(1)

과정별 개요

- 기초 과정
 - 대상: 초3~고3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무학년제로 운영)
 - 내용: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자기 이해 기반 진로 탐색 주제와 내용으로 운영
 - 전문 과정
 - 대상: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무학년제로 운영)
 - 내용: 깊이 있고 심화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진로 설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운영
- ※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제로 개설·운영 권장

8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소개(2)

영역별 주제

영역	주제
인성	다문화, 심리, 상담, 교육 등
문화예술	뮤지컬, 댄스, 연극, 합창, 오케스트라, 영화제작, 애니메이션 등
체육	탁구, 태권도, 검도 등
생태·환경	환경, 기후학, 환경지도 제작, 생태학 등
인문·사회	철학, 역사, 문학 등
수리·융합과학	수학,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등
AI·디지털	반도체, 게임개발, 드론, 로봇, 코딩, 인공지능, 메타버스, 프로그래밍, 미디어 등
글로벌언어	국제언어, 영어회화 등
진로	창업, 마케팅, 제과제빵, 경찰학 등

9

경기공유학교 평택시 2025 대학연계 프로그램 현황

- 2025 평택공유학교 대학연계형 2학기 프로그램(경기이룸대학)
- 온라인 3강좌, 방문형 3강좌 포함 총 6개 강좌
- 방문형 강좌는 평택대에서 진행
- 간호, 영어, 심리 등 각 분야 전문성 갖춘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교육
- 1학기에는 총 8개 프로그램 운영

최신 교육 콘텐츠와 현장 맞춤형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

교육부 놀봄학교 소개

초등학교 정규 수업 종료 이후,
즉 방과후와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머물면서
체계적인 활동·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특히 저학년(1~2학년) 대상 아침 돌봄, 방과후 활동 등

지역자원 연계

학교 외 지역 시설(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기업, 대학 연계

11

놀봄학교 평택시 2025 대학 연계 프로그램 현황

「평택 놀봄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 2025년 9월~11월 운영
- 경인교육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가 참여
- 문화예술, 체육, 융합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10개 프로그램
- 총 15개 초등학교, 24개 반에 무료로 제공
- 신청 학교에는 강사와 교수진이 직접 방문해 수업을 운영

12

경인교육대학교(4개)

- ▲활동으로 익히는 개념수학
- ▲빨대블럭으로 만드는 창의세계
- ▲미래과학자의 첫걸음
- ▲달려라 체육왕!

남서울대학교(6개)

- ▲둔침탓침 리듬 탐험
- ▲룰루랄라 노래하는 파랑새 합창
- ▲그림책과 떠나는 바다 여행
- ▲꿈틀꿈틀 운동회
- ▲출동! 꼬마 경제 박사
- ▲댄스 인 마이 스타일!

13

평택시 직업계고 학교 현황

학교명	주요 학과(전공)	최근 취업 진로(요지)
평택기계공업고 / 평택마이스터고	자동차기계과, 자동차금형과, 생산자동화·시스템제어 등 기계·자동차 계열(마이스터·전문과정). (평택시사신문)	졸업생대부분이 산업체 취업(취업 비율 보고: 약 70~75% 취업, 일부는 대학 진학·군 입대 등). 마이스터고 전환 및 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제조·자동차·폴리텍 계열 대학으로의 '선취업 → 후진학' 연계 사례 다수. (eduinform 님의 블로그)
동일공업고등학교	미래자동차과, 반도체·전기전자과, IT융합컴퓨터과, 에너지시스템과 등(공학·반도체·IT 계열). (more.goe.go.kr)	자동차·반도체·IT 관련 기업 현장실습 및 취업 다수. 지역 대학(평택대)과의 MOU로 장비·교육과정 공동운영·현장실습 연계. (edujin.co.kr)
경기물류고등학교	국제물류과, 국제경영과, 융합소프트웨어 등(물류·유통·IT 융합). (more.goe.go.kr)	평택항·물류기업(평택항만공사 등) 산학협력으로 현장실습·도제교육 운영 → 물류업체 취업 연계강화, 도제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 우선 채용 사례. (gnews.gg.go.kr)
진위고·청담고 등(지역 특성화·실업계)	그래픽미디어·정보처리·게임디자인·부사관·소방안전·영상콘텐츠 등(학교별로 특성화 학과 다양). (more.goe.go.kr)	각 전공별로 관련 산업체·공공기관(예: 게임·미디어사, 공공·군 관련 직군 등) 취업·전문대 진학 경로가 형성되어 있음(학교별 취업현황 게시 제공). (more.goe.go.kr)
평택여자고(경영정보과)·한국관광고 등 특성화학교	경영정보, 관광·외국어 통역(관광영어/일본어/중국어) 등. (more.goe.go.kr)	관광·서비스·사무직·관광통역 등 분야로 진출. 관광 관련 대학·전문대와 연계한 실무형 교육·현장실습 운영. (more.goe.go.kr)

14

평택시 직업계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현황

- ◆ 여러 학교가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폴리텍, 평택대, 전문대학 등)과 MOU를 맺고 시설·장비 공유, 공동프로젝트, 현장실습·인턴, 우선채용 연계, 선·후진학 경로 마련 등을 운영.
- ◆ 지역 산업수요(자동차·반도체·물류·관광 등)에 맞춘 맞춤형 연계가 특징

평택기계공업고 ↔ 한국폴리텍대학(아산캠퍼스 등)

- **형태**: 선취업·후진학 협약, 공동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장비 공동활용 등.
- **효과**: 마이스터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실무교육·대학 진학경로 제공(폴리텍에서의 심화교육·학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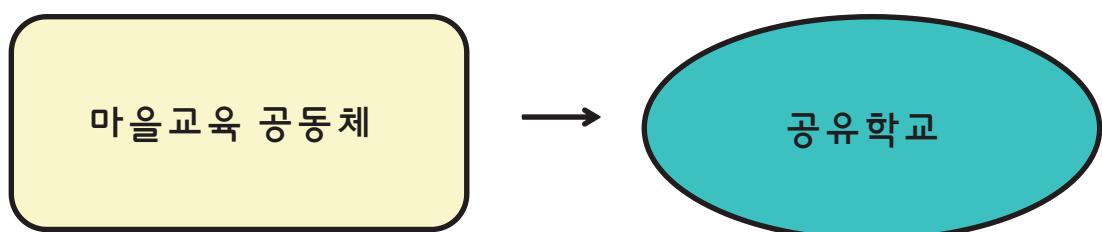
동일공업고 ↔ 평택대학교(대학)

- **형태**: 상호협력 MOU – 대학 시설·장비 공동활용,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현장실습·프로젝트 연계.
- **효과**: 고교 실습과 대학 연구·시설 연계를 통한 실무역량 강화(특히 자동차·설계·디자인 등 분야).

경기물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및 지역 물류기업)

- **형태**: 산학협력·도제학교 운영, 현장실습 제공, 채용연계.
- **효과**: 항만·물류업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취업 연결 고도화(물류 전문인력 양성).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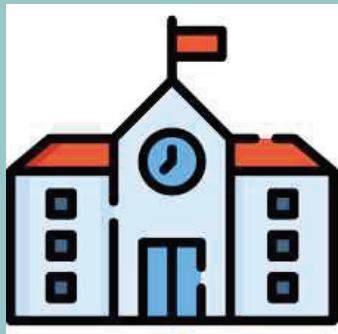
16

커먼즈(common)로서 학교의 의미

- **공동체적 자원**: 학교를 '공동재(common goods)'로 보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자원으로 인식
- **공유와 소통의 공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와 같은 공간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남
- **공공성 확보**: 학교라는 '공동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교육의 공공성 중요함 강조
-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도서관을 '러닝 커먼스'나 '정보·소통 공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참여와 관리**: 커먼즈 운동처럼, 학교의 자원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치적인 방식의 교육 공동체 추구

17

School as Commons



미래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

교육을 국가 권력이나 시장 논리에 의한 사유화 대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하고 누려야 할 **공공재**로 인식

18

교육 공공성 강화



19



20

지역백년대계 제2차 토론회 발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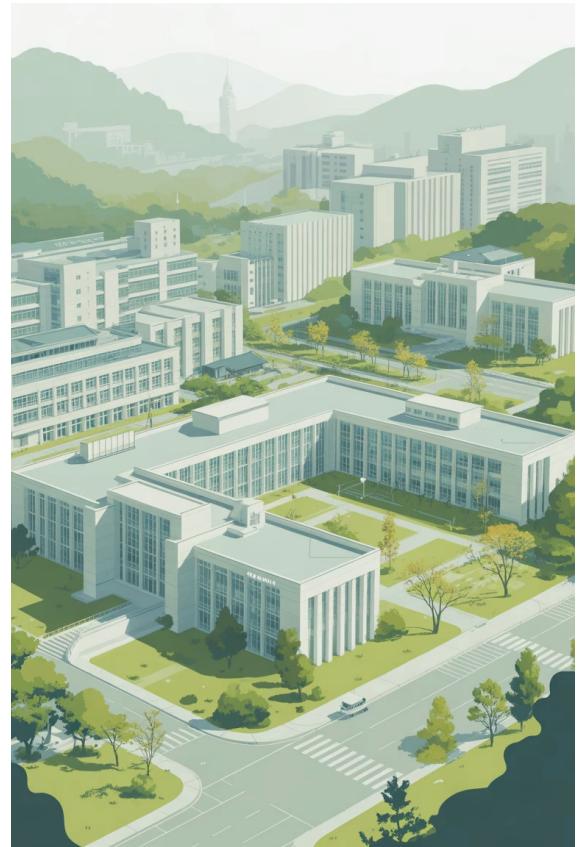
지역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

공공성 강화된 자율 운영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 제안

2025.11.13.

선재원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평택대 교수)



교육의 본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자율운영으로 미래인재 배출

유럽의 자유대학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운영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자유대학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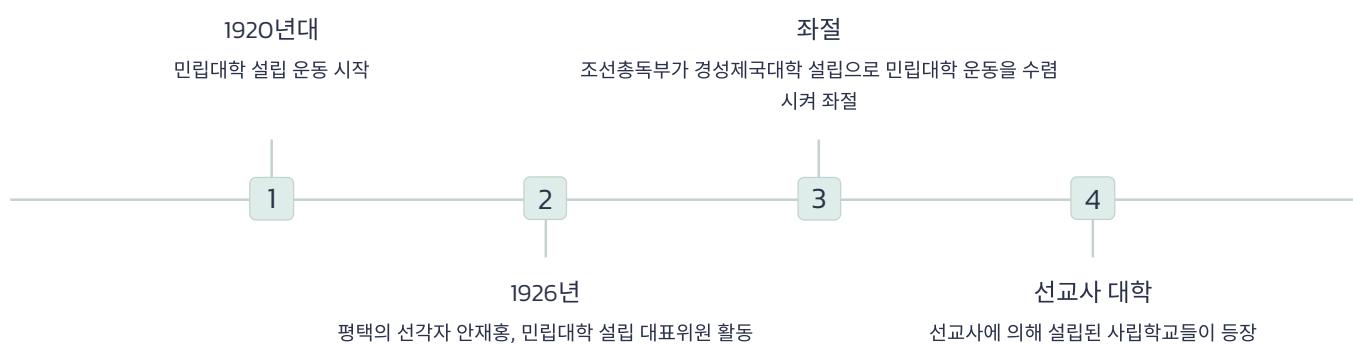
이는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민립대학

3.1운동 이후 한반도에서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역사적 좌절과 도전



안재홍 선생의 교육 정신

평택의 선각자 안재홍 선생은 1926년 민립대학 설립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을 통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 평택 지역의 공공대학법인 추진의 역사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평안신문 2016.2.24]

현대 사립대학의 과제

설립 취지의 퇴색

선교사들이 설립한 대학들의 본래 취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었습니다.

사유화 문제

공공성을 지향했던 교육기관이 점차 사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성 회복 필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역백년 대계와 대학 연합체제



대학교육의 핵심 이슈

학령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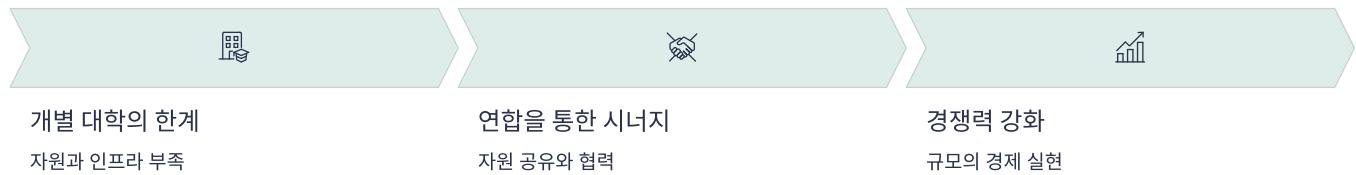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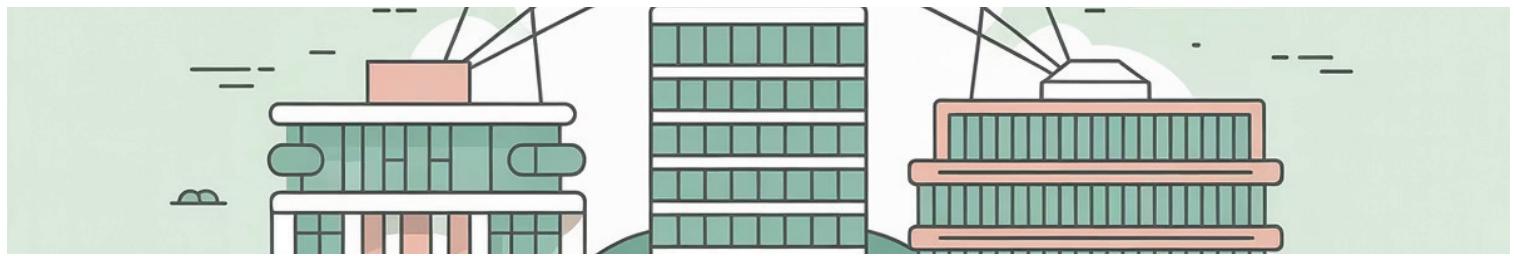
AI시대 인재육성

인공지능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왜 대학 연합인가?

현재의 각 대학별 개별 대응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AI 시대 인재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권역별 대학의 통합 또는 연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남부 대학 연합 추진

경기남부(평택/안성) 지역의 평택대, 국립한경대, 국제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연합체제를 지역 국회의원의 발의로 성공적으로 실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점진적인 연합

교육협력 연계활동을 시작합니다. 교육과정 공유, 대학 인프라 공유, 교수 자원 공유 등 현 고등교육 법상 추진 가능한 대학간 협력 활동을 진행합니다.



2단계: 단계적인 연합

'단계적 통합안'을 마련합니다.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3단계: 참여에 기반한 대학 연합

의견수렴과 통합을 추진합니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을 완성합니다.



병행 추진 협력 활동

교육과정 공유

- 학점 교류 시스템
- 공동 교육과정 개발
- 융합 전공 운영

인프라 공유

- 도서관 공동 이용
- 실험실습 시설 공유
- 기숙사 상호 이용

교수 자원 공유

- 공동 강의 운영
- 연구 협력 강화
- 전문성 상호 활용

규모 비교: 경쟁력 확보

2,646

경기남부 대학연합

평택대(805명) + 한경국립대(1,271명) + 국제대(570명)

2,516

인천국립대법인

비교 기준 입학정원

2024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경기남부 대학연합은 인천국립대법인과 유사한 규모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소규모에서 중규모 대학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규모의 경제화

소규모에서 중규모로

개별 대학의 소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중규모 대학으로 성장하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평택대 공공성 강화 추진 실적과 한계

1

교육부 지원

공영형 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영형사립대도입실증연구 및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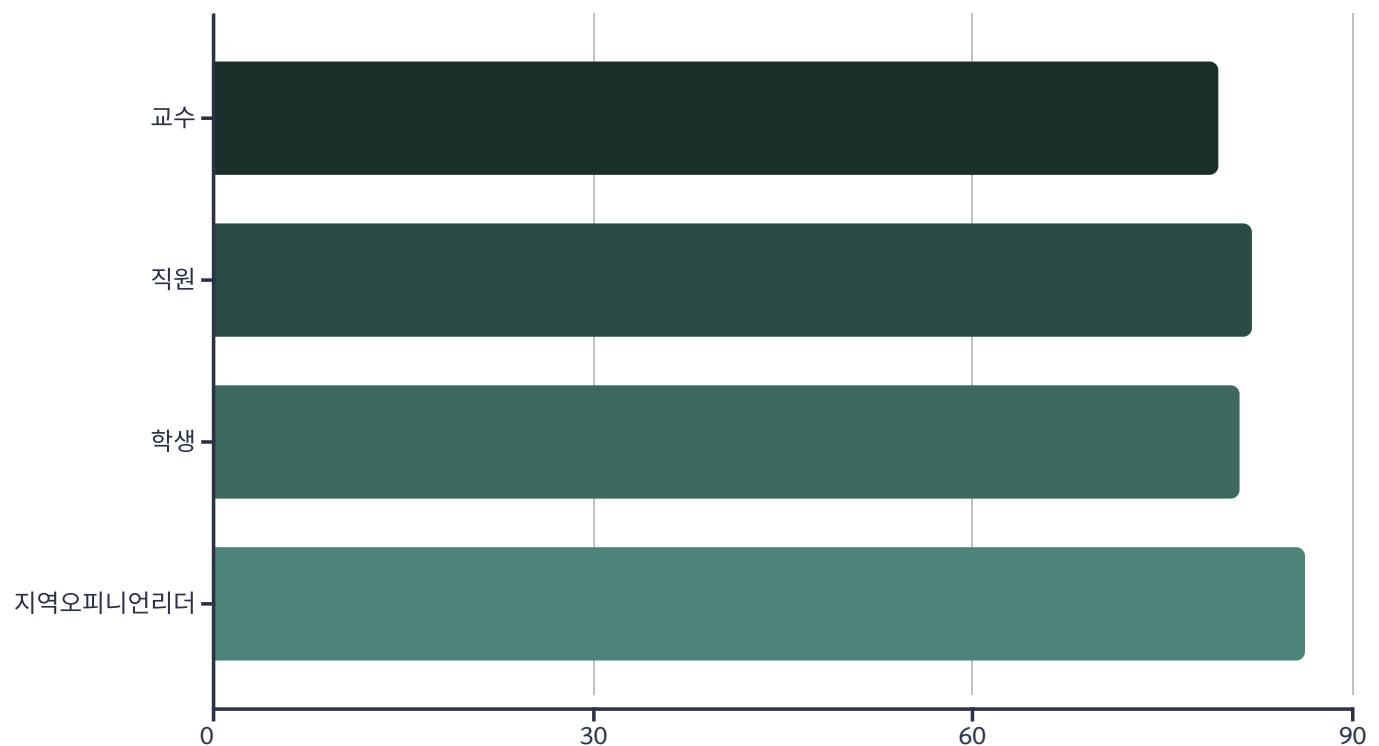
2

현실적 과제

평택대 이사회가 국책지원사업 약속을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 및 이사회 참관 등 핵심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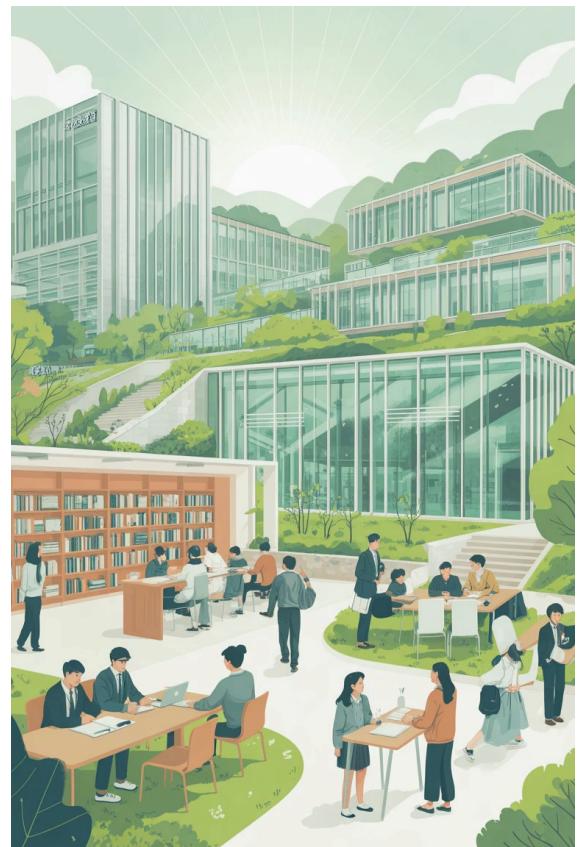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찬성률 (2020년, 한국갤럽연구소)



모든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압도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오피니언리더의 86.3% 찬성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공대학법인의 비전

재정자립형 청년정착형 장학도시 평택의 '공공대학법인'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평택시의 역할과 지원

장학금 지원

평택 출신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 및 생활장학금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기숙사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정착 지원

청년들의 지역 정주와 지역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공공대학법인 운영 모델



학생 중심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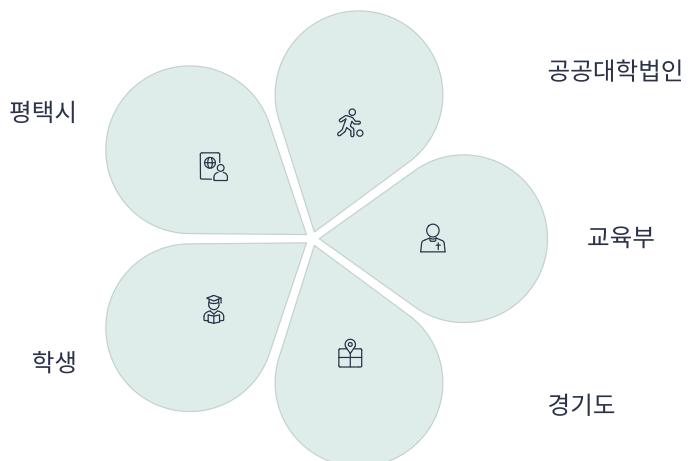


평택 출신 학생 지원

- **전액장학금:**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생활장학금:** 생활비 지원으로 학업 집중 환경 조성
- **장기 체류 유도:**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정착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

함께 만드는 미래

공공대학법인은 단순히 대학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백년대계입니다. 평택시, 공공대학법인, 교육부, 경기도,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 평택 교육의 미래와 공공성 강화 — 초·중·고·대학 연계로 지역 백년대계를 세우다 —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부회장/경기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평택 교육의 미래와 공공성 강화"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준비 방안과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대학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의 시각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I. 서론 -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책임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그들이 살아갈 20년, 3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평택은 현재 산업과 도시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물류 인프라, 신도시 개발 등 외형적 발전은 주목할 만하나, 이러한 속도에 교육 여건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교육의 근본 가치인 접근성, 연계성,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위기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평택은 "교육을 중심에 둔 도시 발전의 백년대계", 즉 공교육과 지역 대학이 함께 진화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형 미래 교육 모델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 결정과 관심에 좌우됨을 인지하며, 본 발제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평택 공교육의 현실과 구조적 한계

현재 평택의 교육 현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학교 접근성의 불균형입니다.

평택은 신도시, 구도심, 읍·면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통학 거리 및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등·하교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거나 복잡한 대중교통 이용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접근권 및 형평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둘째, 고등학교 비평준화로 인한 학교 간 격차 문제입니다.

평택은 아직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학교 간 입학 성적, 진학 실적, 사교육 의존도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을 약화시키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입니다.

우리 공교육 체계는 여전히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수와 서열 중심의 학습 환경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교육'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 본연의 목적인 탐구와 성찰의 기회를 축소시킵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의 위기입니다.

평택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한 자릿수인 학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학교 통폐합 및 지역 교육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를 넘어, 학교의 지속가능성, 교사의 전문성,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중대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섯째, 핵심 교육 활동 예산 배정의 불균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이 2023년 695억 원에서 2025년 3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표 참고]]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공교육 인프라가 지역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교육이 지역사회, 대학,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연결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III.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가치 및 지역사회 연계의 과제

현재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입시 제도의 변경을 넘어,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향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지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 맞춤형 학습 경로로의 전환을 추구합니다.
- *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합니다.
- * 고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체계적인 진로 탐색 및 설계 경험을 제공합니다.
-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 자기관리 능력 등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더 많은 과목을 고르는' 차원의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교육 혁신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차원의 과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과제

- * 학교 간 자원·과목 개설 격차 해소: 도시 지역과 외곽 지역 학교 간 과목 선택의 폭이나 교사 배치에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 * 통학 거리·교통 인프라 보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연속적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 초·중학교 단계부터 "최소 성취 보장(최성보)" 체계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고교학점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단단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예산이 2024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07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표 참고]]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력 지원이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 대학·기업·지자체와의 연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심화한 학습이 대학 및 지역 산업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교육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IV. 미래교육, AI 교육 그리고 인간다움의 회복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는 미래교육과정'을 발표하며, AI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디지털 교과, 온라인 학습 환경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학내망 구축' 관련 예산은 2024년 162억 원에서 2,75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역시 2024년 1,674억 원에서 4,86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 참고]] 또한, '교원연수운영 교육정보화과' 예산도 2024년 29억 원에서 2025년 703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표 참고]]

하지만 이러한 기술 중심의 교육 설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 "기술은 인간을 돋는 도구인가, 아니면 인간을 대체하는 목표인가?"

AI 교육은 단순히 기계적 도구 사용이나 프로그래밍 기능 습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미래 교육은 인간 중심의 교육 철학, 즉 공감·협력·창의성·윤리적 사고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는 이 기술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 '인간 중심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AI 기술을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교육 혁신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인간적인 소통과 창의성 함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때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은 산업, 물류, 국제교류가 집중된 도시이기에, 이러한 '인간 중심 미래 교육'의 실험 도시로서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술을 익히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역 기업, 대학, 그리고 학교가 연계한 AI 윤리·인문 융합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V. 공공대학법인 설립과 지역 백년대계

평택형 미래 교육을 논할 때 '공공대학법인' 설립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작동할 때, 우리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대학법인은 단순히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교육·산업·문화 발전을 총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이 초·중·고 교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구조가 구축될 때, 평택은 진정한 교육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VI. 결론 - 사람을 중심에 둔 평택 미래교육의 비전: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한 실현

저희 학부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수한 학업 성적이나 명문대 진학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학교 접근성의 격차, 고교 비평준화, 입시 경쟁 과열, 학령인구 감소 등은 **우리 교육이 사람 중심이 아닌,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자료가 보여주듯, 디지털 교육 전환 시점에 기초학력

강화 예산이 급감하고 핵심 교육 활동 예산이 축소되는 예산 배정의 불균형은 미래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변화를 넘어, 교육 공공성 회복과 사람 중심의 교육 설계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학부모로서, 평택의 미래를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1. '평택 미래교육을 위한 상생협의체'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 지자체, 지역 대학, 현장 교원, 학부모 및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평택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예산 집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균형 잡힌 교육 예산 배정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핵심 교육 활동 지원,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이 진정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재검토하여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평택의 미래이며, 평택 교육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 지역의 백년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평택은 이제,

- *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기능하는 포용의 도시,
- * 기술과 인간, 산업과 교육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진정한 미래형 교육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본 발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2023-2025년 디지털 및 교육활동 관련 예산 비교표 (단위: 억 원)

구분	세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1) 디지털 관련 예산	교실정보화	396	828	562
	학내망 구축 등(<small>주1</small>)	333	162	2,757
	ICT 활용 교육	200	327	447
	지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74	432	300
	인재개발국	155	428	396
	교원연수운영 교육정보화과	49	29	703
	정보시스템 운영	1,133	1,674	4,865
2) 교육활동 관련 예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정책과)	695	279	35
	교실 수업 개선	31	38	43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1,543	2,269	407
	(추정 항목: 기타 교육활동 관련) <small>주2</small>	382	724	460

[미래을 위한 평택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연계교육] 와 [지역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을 위한 토론문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목원대 교수

먼저 진숙경 교수의 발제문 [미래을 위한 평택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연계교육](이하 ‘미래’)는 적절한 자료조사가 돋보인다. ‘미래’는 경기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대학연계 교육의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은 대학의 풍부한 교육자원을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는 문화예술교육과 직업특성화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 문화예술 더 나아가서는 체육공간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관련학과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훌륭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대학의 관리 어려움을 평 계로 한 비협조 또는 입학자원감소 등의 이유로 한 통폐합과 폐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추세이다.

발제자가 언급한 대로 교육자원은 단지 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등의 인적자원도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서구의 교육 선진국들을 보면 규모가 큰 중등교육기관들은 대부분 학생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많은 다양한 악기들을 가르칠 수 없으므로, 외부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모셔오거나 악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서 배우게 한다. 체육교육을 위한 스포츠팀들을 갖출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는 단순한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교육을 결속시켜서 결국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미래’에 의하면 경기도의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1유형으로는 지역맞춤형, 수업위탁형, 공현형이 있고, 2유형으로는 대학연계형, 학점인정형, 학생기획 형이 있다.,이중에서 평택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 연계프로그램은 경기이룸대학에서 2학기 프로그램을, 평택대에서 방문형 강좌를 진행하는데 간호, 영어, 심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가 참여해서 최신 교육콘텐츠와 현장 맞춤형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 경인교육대학과

남서울 대학에서 수학, 경제, 음악, 체육 등 저학년 아이들 특성에 맞게 재미나게 구성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평택시의 대학연계 프로그램 중에 직업연계 프로그램이 특별하다, 이는 지역에 항만물류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조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평택기계공업고가 한국폴리텍대학과 동일공업고가 평택대학과 협약을 맺고 공동교육 과정개발부터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습과 취업연계까지 진행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이러한 좋은 모델은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그에 따라서 실제 운용과 효과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진숙경 교수가 결론적으로 제기한 ‘학교는 공공재여야만 한다’는 명제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판단된다. 말이 사립대학이지 재단전입금 없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교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립대학들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학교를 사적재산으로 소유화하려는 바람에 대학들이 지역과 또는 다른 교육기관들과 한 몸이 되는 공공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재원교수의 [지역 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이하 ‘공공’)은 경기남부지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합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은 그 역사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취를 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운영으로 탄생한 모델로 유럽의 자유대학과 한반도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들고 있다. 발제자는 특별히 평택지역의 안재홍 선생을 소환하는데, 그는 1926년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민립대학 설립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공공’은 평택 지역의 공공대학법인 추진의 뿌리를 안재홍선생의 교육 정신에서 찾고 있다. ‘공공’, 역시 ‘미래’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가장 큰 장애물로 언급 한다. 사례로든 평택대와 같이 많은 한국의 기독사학들이 선교사들이 설립하고 돌아간 후 그 밑에서 일하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소유화됨으로써 교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발제자는 현대 대학교육의 핵심이슈는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와 AI시대를 맞이한 인재육성이며,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권역별 대학의 통합 또는 융

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법으로 경기 남부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평택대학교, 국립대학인 한경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인 국제대학의 연합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1,2,3차에 걸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참여에 기반한 연합이여야 하며, 병행추진협력활동으로 교육과정, 인프라, 교수자원을 공유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공공’은 지난 ‘공영형사립대학’의 지정과 운영에서 보여준 평택대 공공성 강화의 실적과 한계를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공공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지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을 결론한다. 아울러서 평택대를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정착 등을 위한 지자체의 절대적인 노력이 배경이 됨을 강조한다.

선재원 교수의 ‘공공’은 평택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목표로 그 역사성을 추적하며, 과거의 잘못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지적하고 결론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서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한 경기남부연합은 지역 국립-사립-전문대 연합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단점을 극복하는 진일보한 정책제의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질문은 이러한 지역대학중심의 지역상생모델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결국 ‘주체의 의지’가 절박해야하는데, 평택대 내부 구성원은 그만큼 못 미치는 것으로 느껴진다(특별히 교수들). 그렇다면 결국 ‘주요한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밖의 염원과 연대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까?’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진숙경 교수와 선재원 교수는 각각 ‘미래’와 ‘공공’에서 학교는 누구의 것이 아닌 공공재임을 결론한다. 그러하기에 지역과 밀착하여 지역민의 필요에 충족하며,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도 되어야하고,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와 정착에도 함께해야 한다. 입시제도, 일자리 서울집중, 직업별 소득 격차 등 구조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결국 함께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역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때 타 지역으로 나비효과로 퍼져나가서 결국 전체를 바꿀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 발제자의 전체적인 기조에 동의한다.

이제는 평택시가 답하라

하태원

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10대·11대 총학생회장

평택대학교는 1980년대 초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 40여 년간 지역사회와 동고동락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도시의 발전에는 언제나 대학이 있었고, 대학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용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평택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청년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사회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평택의 성장을 함께 견인해온 소중한 지역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재정난,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택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백년대계, 즉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합니다.

1. 지역인재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첫 번째 발제에서 제시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는 지역백년대계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평택의 교육 현실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은 ‘남겨진 학생들의 선택지’로 인식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택시교육청-대학-지자체가 공동으로 ‘평택형 지역인재 육성 트랙’을 설계하며, 대학은 지역 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현장 기반 학습-취업-정착’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구조는 단순히 교육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평택의 인구·산

업·문화가 지속가능하게 순환하는 도시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 공공대학법인과 평택대의 재도약

두 번째 발제인 ‘지역백년대계와 공공대학법인’은 평택대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실적 대안입니다.

평택대는 오랜 기간 사학 비리와 운영의 사유화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설립자의 정신은 퇴색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립대학의 사유화’에서 ‘공공대학법인화’로의 전환입니다. 대학의 법인 구조를 공공적 통제 아래 두고, 평택시, 경기도, 교육부가 재정과 인력을 공동 분담하며, 지역 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사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택대는 공공대학법인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대학’, ‘공공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993년 4월 19일, 저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419 마라톤 대회를 기억합니다. 그날 학생들은 “피어선대학을 평택대학교로 바꾸겠다, 평택시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본질은 지금의 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이 지역의 공공재로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지역백년대계’는 그 외침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평택시와 시의회, 국회의원은 이제 ‘평택대 공공대학법인화’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교육의 출발점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시민대학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